



(21:1-9¹⁾; 22:6-23)

한동구 | 평택대

1. 서론¹⁾

다윗은 쏘이שראל의 왕이 되기까지 숱한 역정을 겪었으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여, 마침내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가장 성공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상승하기 위한 필요한 내외적 준비를 갖춘 자에게만 온다. 역사가는 다윗의 성공 요인을 군사적 요인과 함께, 그가 주도한 신학적 변혁 속에서 찾고 있다.²⁾ 다윗은 망명 중에도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1장 2-10절로, 이하에서는 '히'로 표현함.

2) 특히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장일선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993⁶⁾), 38-70을 참

비인 지혜의 길을 추구했다.

삼상 21-22장은 다윗 상승 역사(삼상 16장 - 삼하 5장)의 한 부분이다.³⁾ 이 역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삼상 16:1-16)에서 시작하여,⁴⁾ 다윗이 쉰이스라엘(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삼하 5장)에서 끝난다. 다윗 상승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다윗과 사울'이다. 여기에서는 다윗과 사울은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윗의 생애는 상승의 과정으로, 사울의 생애는 몰락의 과정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관점에서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사울의 신하로 그의 왕궁에 머무는 단계(삼상 16-18장), 망명생활의 단계(삼상 19-27장), 그리고 권력 형성 및 왕권 형성의 단계(삼상 28-삼하 5장).

그 가운데 망명생활의 단계(삼상 19-27장)는 다시금 3기로 세분할 수 있다: 망명 제 1기(삼상 19-20장); 망명 제 2기(삼상 21-22장); 망명 제 3기(삼상 23-27장).⁵⁾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망명 제 2기에서부터 다윗은 자신

조하라. 원제는 W. Brueggemann, *In Man We Trust*. 여기에서 Brueggemann(브뤼거만)을 번역자의 명명에 따라, 저자에 한하여 '브루거만' 혹은 '브루지만'으로 표기했다.

3) 최근 사무엘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74-95, 유연희, "아비가일의 남자들: 사무엘상 25장 다시 읽기,"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98-118, 구자용, "삼하 11장 - 아 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119-141.

4) 다윗 상승의 역사(삼상 16장 - 삼하 5장)가 삼상 16장 1-16절에서 시작한다는 견해에 이견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단락은 이미 이스라엘 왕조시대 초기, 다윗-솔로몬 시대의 변증적 성격의 본문에서 왕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개정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조 W. Dietrich, *David, Saul und die Propheten*, (BWAT 122; Stuttgart/Berlin/Köln/ Mainz: Verlag W. Kohlhammer, 1989), B. Lehnart, "Saul unter den 'Ekstatikern'" (ISam 19, 18-24)," W. Dietrich(Hrsg.),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OBO 206; Freiburg/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Vandenhoeck & Ruprecht, 2004), 205-224, L. Schmidt, *Menschlicher Erfolg und Jahwes Initiative*, (WMANT 38;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70).

5) 다윗의 망명 생활에 대한 구분은 제 1기(삼상 19-20장)에는 요나단, 미갈 및 사무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나, 제 2기(삼상 21-22장)부터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제 3기(23-27장)에는 격렬한 사울의 추격을 보도한다. 그리고 삼상 19-20장에서는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으나, 삼상 21장 1절부터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의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고난의 관점과는 달리, 다윗의 생애를 권력 형성의 관점에서도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⁶⁾ 다윗 상승 역사는 주로 두 가지 점에 집중한다. 첫째, 외적으로 다윗의 군사적 성공이 전면에서 있다; 둘째, 내적으로는 다윗은 지혜신학의 가르침, 즉 통치자의 인품을 갖추는데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다윗은 위기 중에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혜신학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에 따른 책임이 동반된 자유로운 행동을 통하여(주로 삼상 21-22장)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주로 삼상 23-26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개인적 복수를 삼가는 절제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주로 삼상 23-26장)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군사적 성공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이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일구어냈으며, 이는 곧 새 시대의 정신으로 발전되어 자신의 성공은 물론 거대한 제국 형성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윗이 일구어낸 새로운 시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뤼거만(W. Bruegemann)은 통일왕국 시대를 “이스라엘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일어난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 했다. 새로운 역사의 형태는 새로운 역사 기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역사 기록은 다윗 상승 사화(삼상 16: - 삼하 5)과 다윗 왕위 계승 사화(삼하 6장 - 왕상 2장)이다.

이 역사기록에서는 범제의성이 무력해지기는 했으나, 야훼의 범작용성

6) 상승의 역사 1단계 - 군대 조직(삼상 22:1-2)

상승의 역사 2단계 - 블레셋에서의 분봉왕이 됨(삼상 27:5-6)

상승의 역사 3단계 - 유다에서 왕이 되는 단계(삼하 2:4)

상승의 역사 4단계 - 완성의 단계 -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됨(삼하 5:3).

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지는 않았으며, 세계는 이성지식과 신앙지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인식도구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또한 역사는 이제 인간의 과업이며 직무임을 보여준다.⁷⁾

다윗 이전 시대의 범제의성은 혈연적, 지연적, 성별적, 인종적 및 사회적 걸림돌과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를 포함하여, 사울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즉 다윗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상황은 ‘제의적’이었다. 전쟁의 성패도 제의적 규범의 준수여부에 달려있었다(삼상 14:24). 다윗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그 시대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윗의 신앙적 자세를 나타내는 그의 하나님 체험과 이로 인해 그가 얻은 성스러움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삼상 21-22장의 문학적 특성과 함께 본문의 저자를 규명하며, 계속하여 삼상 21장 1-9절을 정밀히 주석한다. 이어서 다윗이 추구한 새로운 세계관을 다양한 관점(혈연적, 지연적, 성별적, 인종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왕조시대 전후의 정신적 세계의 변화를 고찰한다.

2. 삼상 21-22장의 문학적 특성

삼상 21-22장은 다윗의 망명 생활 초기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이는 모두 5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놉에서의 다윗(삼상 21:1-9/히2-10) - 하강

외국땅으로 망명(삼상 21:10-15/히11-16) - 하강

권력형성(삼상 22:1-2) - 상승

외국땅으로 망명(삼상 22:3-5) - 하강

7) 브루지만, 윌글.

첫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눅 성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상 21-22장은 다윗 망명 제 2기의 이야기의 단락을 형성한다. 첫 번째 단락(삼상 21:1-9/히2-10)에서는 다윗이 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피한 사건을 보도하며, 다섯 번째 단락(삼상 22:6-23)에서는 사울이 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보도한다. 여기에서 다윗과 사울은 각기 상반된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외국으로 망명을 간 사건을 보도한다. 둘째 단락(삼상 21:10-15/히11-16)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망명간 사건을, 넷째 단락(삼상 22:3-5)에서는 다윗이 모압으로 망명간 사건을 보도한다.

그리고 이 단락의 중심에 다윗이 민병대를 조직하는 사건을 보도한다(삼상 22:1-2). 이것이 다윗의 권력 형성 제 1단계(시초)이다.

다섯 사건들은 각기 다른 사건들이지만,⁸⁾ 현재의 문맥은 다윗상승사화의 저자에 의해 편집된 단락으로 그 의미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의 편집에 의해 눅에서의 두 사건과 망명의 두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독자적 권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케 한다. 또한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실패가 서로 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다윗의 권력형성 제 1단계(삼상 22:1-2)는 무에서 유를 창조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성공의 원인을 눅에서의 다윗의 태도에 반영된 그의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눅에서의 사울의 태도는 계속되는 그의 실패와 패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8) 차례 차례로 일어난 연대기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

3. 삼상 21장 1-9절 분석

다윗은 망명자 신세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삼상 19:18-24), 다음은 요나단에게(삼상 20장), 그리고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삼상 21:1-9/히2-10)에게로 망명했다. 이러한 추격 과정에서 분노에 찬 사울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표상처럼 보였으며, 다윗은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심을 보였다. 또 다윗은 복수심을 자제하고 관용적인 자로 나타난다. 이는 지혜로운 자의 표상이다.

1)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감(삼상 21:1a)

다윗은 본격적으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사울과 결별하게 되었고,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전에 사무엘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⁹⁾을 찾았다.

위기에 처한 자가 그의 도피처로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는 어떤 곳이 있었을까? 사울은 다윗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

9) 놉은 기브아와 예루살렘(사 10:32) 사이, 아나돗 근처(느 11:32)에 놓인 도시로, 실로가 파한 후에 놉은 북-지파의 전통적 성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톨츠는 놉 성소를 실로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도피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엘리의 손자인 이가봇이라는 자가 있고, 그의 형인 아히둡이 있다. 아히둡은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하다(삼상 22:11/히12). 그래서 스톨츠는 이 아히멜렉을 엘리의 증손으로 보았다. 프리쯔 스톨츠, 「사무엘상 하 (國際聖書註釋 8)」(박영옥 옮김),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91), 232-233. 원제는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cher Bibelkommentare 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이와는 달리 헨첼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히둡의 아들(삼상 22:9, 11, 12, 20)로 엘리의 손자인 이가봇의 형의 이름(삼상 14:3)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는 후기 전승에 근거하여, 이름이 동일하다고 하여 동일한 인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G. Henschel, *1 Samuel*, (NEB 33; Würzburg: Echter Verlag, 1994), 124.

분명 신명기 사가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심판받은 가문에 다윗에 다시 의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투를 하기 위해 대진을 쳤다. 블레셋 진영은 수뱀에 걸집했고, 이스라엘 진영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러자 자신이 몰아낸 언돌의 死者 무당을 찾아 死者 술법의 점을 치게 했다(삼상 28장).

이와는 달리 다윗은 항상 주의 종을 찾아가 그의 생명을 의탁했다. 이번에도 그는 농에 있는 성전을 찾았다. 성전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로 종종 이용되곤 했다. 다윗도 이러한 전통에 의지했을지 모른다.

다윗은 항상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답에 따라 행동했다. 이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윗이 성전이나 주의 종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기 위함일 것이다.

2) 제사장 아히멜렉의 두려움(삼상 21:1bα)

다윗은 낯선 사람의 돌봄 가운데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곤경이나 고난에 빠졌을 때, 기지와 사려 깊은 태도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했다.

다윗이 농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자기 찾아가자,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클레인(R. W. Klein)은 아히멜렉의 두려움을 명시적으로 위협스러운 정치적 모반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를 전제하고 설명한다. 그는 ‘아히멜렉의 두려움’을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도시의 장로들이 보여준 두려움’(삼상 16:4)과 연결하여 설명했으며, 또 이는 삼상 22장 6-23절에 보고된 무서운 살해를 예견한다고 보았다.¹⁰⁾

다른 한편 스토베(H. J. Stoebe)는 이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며,

10) 클라인, 「사무엘 상」(WBC 10; 서울: 솔로몬, 2004), 368. 원제는 R. W. Klein, *1 Samuel*, (WBC 10).

에리히(Ehrlich)의 견해를 따라, 반가움의 순간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를 맞이했다”고 번역했다.¹¹⁾

이와는 달리, 스톨츠(F. Stolz)는 장수가 군사작전에서 실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수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윗이 혼자 왔으므로 그에게 혼자 올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¹²⁾

본문에서는 아히멜렉의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명시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단락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삼상 21:1-9/히2-10), 아히멜렉의 두려움은 사울의 정치적 보복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패전과 같은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다만 장수가 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상대방을 의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의 망명의 역사(삼상 19-26장)를 보도한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아히멜렉의 두려움은 정치적 두려움의 복선으로 읽을 수 있다. 편집자의 두려움은 은연중에 등장인물에게 전이시키고 있다.

3) 아히멜렉의 질문과 다윗의 거짓 답변(삼상 21:1bβ -3)

제사장 아히멜렉은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은 왕명에 의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므로,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특사임을 주장하며, 아히멜렉의 의아함을 풀어주고자 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망명 중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사울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진실을 말했을 경우,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종, 즉 제사장 아히멜렉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다윗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놈의 제사장들을 모두 살

11) H. J. Stoebe, *Das erste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Mohn, 1973), 300, 392.

12) 스톨츠, 「사무엘상 하」233.

해했다(삼상 22:14-15).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의증으로, 지금은 사울과 불편한 관계에 빠졌을 지라도, 이 불편한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른다.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하여 자신이 가벼운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옛 상사에 대한 배려이며, 동시에 다윗 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자임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4)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구함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한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삼상 21:4) 이에 대하여 제사장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보통 빵은 없고, 다만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 빵은 일상적인 빵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된 빵이라는 것이다. 이 빵은 야훼께 바쳐진 빵으로, 본래 神의 식량으로 이해되었다. 성전(성소)에는 제단(출 25:23-30; 출 35:19; 참조 출 37:10-16)이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빵(진설병 **לֶחֶם פָּנִים**/얼굴의 빵)을 두었다. 납작한 빵은 ‘신의 면전에 차려 놓은 제물’로 아마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차려 놓아야 했다. 이와 같이 빵을 신의 면전에 차려놓는 관습은 ‘신적 존재가 빵을 먹는다’라는 고대적 사유에 기인한다.¹³⁾

교체된 빵은 제의적 특성을 지녔으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즉, 깨끗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레 24:5-9; 참조 삼상 21:1-6; 마 12:4; 막 2:26;

13) 이러한 관습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성소에서도 행해졌고(삼상 21:5), 솔로몬 성전에서도 “진설병”을 차려 놓은 금 제단이 있었다(왕상 7:48; 참조 6:20). 헤롯 성전에도 그러한 제단이 있었음을 티투스 야지 글귀가 증거한다. 안식일마다 이 제단에는 12개의 빵, 즉 12지파를 위해 한 지파에서 한 개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레 24:5-8).

눅 6:4).

둘째, “당신의 병사들이 여자와 잡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매우 특이하다. 군대의 정결 규정을 지켰다면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의 정결규정이란 전쟁에서 신의 보호를 받아 적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를 하고자하는 자는 출병 이전 3일전부터 여성과의 성관계(性關係)를 갖지 말아야 한다. 일종의 금욕적 삶의 요구이다. 전쟁의 승패가 정결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상은 고대의 금기사상과 유사하다.

이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저녁때까지, 즉 블레셋에게 복수하기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겠다고 야훼께 맹세한 것과 같다. 절제와 금욕을 통하여 야훼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고대의 금기적 전쟁관습이다(삼상 14:24).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두 번째 질문에 “참으로 우리는 여자와의 잡자리를 삼 일 동안 억제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하여 “제가 출정할 때, 병사들의 그릇은 성결합니다. 그것은 보통의 길에서도 (항상) 성결하며, 하물며 오늘은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곳에는 보통의 빵은 없고, 야훼께 드린 진설병 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운 빵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그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 사건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정결한 자란 통상 ‘제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는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대의 정결 규칙을 지켰다고 제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은 전통적인 거룩 개념에 매여

있지 않았다.¹⁴⁾ 분명히 정결성과 거룩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 다윗은 성전(성소)과 관련된 정결함과 거룩함의 개념을 깨고, 그것을 인간의 일상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었다.¹⁵⁾ 그는 제의적 정결성과 거룩성을 일상생활에서의 보편적 거룩성으로 해석했다.

그는 혈통에 근거한 거룩성과 정결성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았다. 다윗은 낡은 전통에 매이고자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과거의 세계관을 넘어섰다.

다윗은 과감하게 새로운 세계로 넘어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편적 거룩성을 추구했다. 그는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보편적 거룩성을 추구했다. 그는 모든 일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룩성과 정결성을 유지했다. 다윗은 새로운 세계관, 즉 합리적 세계관에 마음을 열었다. 이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물이 되게 했다.

5) 에돔 사람 도역의 소개(삼상 21:9)

본문은 갑자기 사울의 신하 중의 한 사람이 그 곳에 있었다고 보도한다. 그는 에돔 사람 도역으로 사울의 기병대장이었다. 이 보도는 분명히 삼상 22장 6-23절을 전제한다. 삼상 22장 6-23절에서 그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은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여 놈의 모든 제사장들을 살해했다.

6)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아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얻은 후, 도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무기를 얻고자 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의 일이 급했기 때문에 칼과 무

14) 제사장 아히멜렉의 경우 본문 저자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15)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

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라도 당신이 갖고자 하신다면, 가져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이 장소에)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 낚 성전을 떠났다.

다윗은 낚 성전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망명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 즉 식량과 무기를 갖추고 그 곳을 떠났다. 골리앗과 그의 칼은 당시 사울 왕국이 넘어서야 하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이를 다윗이 다시 소유함으로써 그가 새 시대의 주인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듯했다.

7) 하나님께 물음과 세계 변혁의 거룩성

다윗이 금기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보편적 거룩성의 토대 위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삼상 22장 6-23절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야훼께 그의 의지와 뜻을 구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을 몰살시켰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낚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야훼께 그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다(삼상 22:10aα).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역이 증언했고, 이를 사울이 반복했다(삼상 22:13bβ). 그리고 아히멜렉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다윗은 왕실의 존귀한 자로, 그를 위해 여러 차례 야훼께 그의 뜻을 물었다고 말했다(삼상 22:15a).

다윗이 야훼께 그의 의지와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비움을 전제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야훼

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야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초월의 권능을 (위기의 순간에) 일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 삶을 영위했고, 이는 성스러움을 일상에 간직하는 일이었다. 이 성스러움은 진정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힘이 되며, 과거의 세계관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올 수 있는 세계 변혁의 힘이다.

4. 다윗이 추구한 새로운 세계관: 혈연적, 지연적, 성별적, 인종적 및 사회적 걸림돌을 넘어

다윗은 직업적으로 제사장 가문에만 적용했던 좁은 의미의 거룩성을 보편적인 거룩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윗은 쏜새애를 걸쳐, 불합리한 장벽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전개하며, 새로운 역사를 여는 토대가 되었다. 다윗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은 그가 체험한 성스러움에 기인한다.

1) 사회적, 계층적 걸림돌을 넘어

사울과 결별한 다윗은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도, 그는 항상 야훼께 묻고, 그 해답을 따라 행동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그의 성공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룩되었다.

다윗은 망명 중에 아돔 지방에서 민병대를 조직했다(삼상 22:1-5). 그는 아돔 지방으로 피신했다. 이 마을은 본래 가나안 도시국가의 수도였으나(수 12:15), 나중에 유다의 영토가 되었다(수 15:35). 아돔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는 지대였다. 다윗이 아돔 지방으로 갔다는 말은 사울이 쉽게 쫓아올 수 없는 외국으로 갔다는 말이다. 다

윗은 이러한 권력의 공백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 민병대를 조직했다.

다윗의 군대에 합류한 자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여기에서 “환난 당한 자”란 자연재해, 전쟁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자를 말한다.

“빛진 모든 자”란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종종 채무 노예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채무를 갚지 않고 야밤에 도주하기도 했다. 또는 도주한 자들 중 일부는 도적의 무리에 속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곡물을 빌려갈 때의 가격과 추수기의 가격이 엄청나게 격차가 날 때, 이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일을 당했으므로, 마음으로는 원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점진적으로 다계층적 사회로 변화했다. 이스라엘 사회는 왕권제도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배계층과 몰락한 빈민계층의 출현으로 다계층적 사회로 분화되어 이미 평등한 사회구조를 상실했다. 경제력의 차이가 사회 계층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 사회가 다계층적 사회로 변화했다는 점을 계약법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은 모두 인생의 낙오자들이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규합하여 민병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분명히 사회 구조로부터 낙오된 자들이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그의 꿈을 이루는 역군으로 변모시켰다.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버리진 돌을 주춧돌로 변화시킨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과 같다.

2) 성적 편견을 넘어

다윗이 제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지혜의 길을 따르고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그는 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성적 편견을 갖지 않았다. 여성이 충고했을지라도, 지혜의 길을 예시했다면 이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받아들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 그 어떤 성적 편견도 두지 않았다.

다윗은 나발에 심한 모욕을 당해 격분한 나머지 군사적인 힘으로 그를 응징하려 했다. 이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바른 길을 갔다.

여기에서 보여준 지혜 신학의 가르침은 자신의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태도에 있다.

잠언에서는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잠 20:22). 따라서 스스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려는 비신앙적 행위이다.

아비가일이 충고했을 때, 다윗은 그가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참조 삼상 25:26, 28-30).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야훼께서 그의 계획을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루려 했다고 고백했다.

다윗은 지혜의 가르침을 중시했다. 그가 군대를 조직할 때에도, 병사들의 출신과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중시했듯이,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올바른 조언자를 중시했다.

3) 인종적 편견과 걸림돌을 넘어

다윗이 분봉왕으로 시글락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삼상 30장).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사흘동안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네겟과 시글락을 약탈했다. 그들이 시글락을 불 지르고,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아말렉을 뒤쫓아 추격했다. 가는 도중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3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두 송이도 주어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 후 다윗이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애굽 사람이며, 아말렉 사람의 신하였는데, 그가 병이 들자 상전이 그를 버렸다고 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물었고, 그의 도움으로 그들의 본거지를 쉽게 찾아 정복할 수 있었다.

다윗은 애굽 사람이며, 병든 한 병사를 인간애로 대접했다. 그러자 그는 감동했고, 마침내 도움을 주었다. 진실로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할 때에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다윗은 많은 외국인 병사들을 용병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께 피난을 갔다. 이 때 외국인 병사들도 함께 따라갔다. 삼하 15장 17-22절에서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도 함께 피난을 갔다.

다윗은 갑자기 '나그네 살이'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병사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관심을 보였다. 다윗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살아라! 너는 외국인이며, 고향을 떠난 자이니,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어제 네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처 없이 떠돌 것이다. 돌아가서 네 형제와 함께 살아라! 너와 함께 사랑(=은혜)과 진리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처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이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진심의 배려에 감사하여 잇대도 다윗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잇대가 왕에게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그 곳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만이 어려운 처지에서 동조자를 얻을 수 있다.

다윗은 외국인 병사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염려와 배려를 함으로서, 민족적, 인종적 차별의 편견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계급 차등의 거부

삼하 23장 8-9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대상 11:10-47)에 대해 보도한다. 이 본문의 목적은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다윗의 용사들 중 ‘삼십 두목’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삼하 23:13-17).¹⁶⁾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는 목이 말랐다. 때마침 베들레헴 성문 곁, 즉 블레셋 진영 곁에 우물이 있었고, 다윗은 여기의 물을 마시기를 원했다. 브루지만은 “이 갈망은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윗은 이 갈망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으나, ‘삼십 두목’ 중 세 명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왔다.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용감했고, 다윗도 감동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야훼께 부어드렸다, 왜냐하면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으로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행위를 브루지만은 제의적으로 해석했다. 즉, 다윗은 목숨을 건 값

16) 브뤼거만은 삼하 23장 13-17절이 사무엘서의 부록의 위치에 놓여있으나, 삼하 5장 13-25절과 연결하여 읽고자 했다.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 50.

비싼 물건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오직 야훼께만 어울리는 것으로 제의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야훼께 드린 것이라 해석했다.¹⁷⁾

다윗은 계급의 차등을 거부한 것이다. 조직의 관리를 위해 상하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보았다. 다윗은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값비싼 목숨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다.

5. 왕조시대 전후의 정신적 세계의 변화

부버(M. Buber)는 “왕조시대 이전과 사울 왕의 시절까지의 정신적 세계는 ‘범제의성’ (Pansakralität)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특징지었다. 이 시대의 정신적 세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승이 거의 없다. 이 시대에 나온 많은 전승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의해 너무 심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¹⁸⁾

폰 라트는 삼상 13-14장에서는 정신적 대혁신 이전에 속하는 설화를 담고있다고 보았다. 삼상 13-14장의 설화자는 모든 결정적인 것, 즉 군사적 우위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분쟁들까지도 제사적 세계의 관점 및 제의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사울이 군인들에게 부과한 금식서약, 배신자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저주, 요나단이 가져온 표지,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한 ‘신에 대한 공포’, 굶주린 군인들이 제의적으로 불결한 고기를 너무 급하게 먹은 일, 사경에 이른 요나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해 ‘해임’ 시킨 일 등이다.

17)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 50-51.

18)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 이스라엘의 지혜의 신학」(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80), 73.

여기에서는 전쟁의 사건이 대체로 제의적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사건이 제의와 제사질서들에 의해 정리될 수 있었다. 이는 매우 태고적인 신앙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신앙을 폰 라트는 범제의적 신앙이라 부른다.

그러나 다윗-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이 나타난 정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제의적 규범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다윗 상승 사회(삼상 16: - 삼하 5)와 다윗 왕위 계승 사회(삼하 6장 - 왕상 2장)의 모든 사건들은 왕의 정치적 의지, 약한 자들, 명예욕, 민족 내의 음모, 치정의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사건들은 모두 긴밀히 연결된 ‘인과관계’에 따라 상황과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법칙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들의 실마리가 야훼의 손에 달려 있었음도 우리에게 제시한다.

고대 역사서의 정신세계는 지파 사회의 전통적 관점의 유산인 “야훼 중심적 세계관”을 새로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했으며, 인과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가졌다. 또한 새로이 형성된 거대한 제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성찰하고, 이를 새로운 정신세계의 관점으로 이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신이 아니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며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역량을 높이 존중하게 되었다.

6. 요약과 결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했다. 그는 사울과의 불편한 관계를 타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았고, 내면으로 승화시켰다. 나아가 범제의성이 지배하는 고대 세계에 혈통적(=신본적) 기록성의 개념을 깨고, 보편적 기록성의 개념을 추구했다.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합리성의 토대 위에 모든 일상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보편적 기록성과 정결성을 추구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성스러움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자율적인 존재, 즉 자유로운 행동과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인격체로 행동하게 했다. 이는 더 나아가 다윗을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 가운데 놓이게 했고, 이 신뢰는 다윗으로 하여금 혈연적, 지연적, 성별적, 인종적 및 사회적 걸림돌과 묶여 있는 범제의성을 변혁하여, 오직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정의론을 형성케 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었다.¹⁹⁾

7. 참고문헌

브루거만, 「사무엘상.하」(현대성서주석;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W. Brueggemann, *Fri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Westminster: John Lnox Press, 2000).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장일선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원제는 W. Brueggemann, *In Man We Trust*.

스톨쯔, 프리쯔, 「사무엘상. 하 (國際聖書註釋 8)」(박영옥 옮김),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91), 232-233. 원제는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icher Bibelkommentare AT 9; Zürich:

19) 폰 라트는 이를 계몽된 정신성이라 불렀다. 참조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 이스라엘의 지혜의 신학」, 73.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계몽된 정신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지혜문학에서 파악한 새로운 이해는 ‘내재된 현상들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승인과 ‘생활수단들(생명, 소유, 명예 등)의 상대적인 독자적 가치’의 승인”이다. 자율성과 생활 수단에 대한 독자적 가치는 삶과 세계를 결정하는 질서들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 지혜문학에서 발견되는 ‘자율성과 생활 수단에 대한 독자적 가치’는 결코 야훼 신앙과 충돌되지 않았다. 이 지혜문학에서 범제의성이 무력해지기는 했으나, 야훼의 범작용성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지혜문학에서도 여전히 신앙적 영역이 지배하는 곳은 인간 인식의 유한성의 평범하고 일상적 경험의 영역이다. 다양한 인간의 경험 지식 속에는 하나님 경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의 경험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 세계는 이성지식과 신앙지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인식도구에 의해 인도되었다. 따라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혜문학을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주적인 이성의 작업에서만 보려는 것이다.”

- Theologischer Verlag, 1981).
- 클라인, 「사무엘 상」(WBC 10; 서울: 솔로몬, 2004), 368. 원제는 R. W. Klein, *1 Samuel* (WBC 10).
-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허 혁역),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74-95.
- 유연희, “아버가일의 남자들: 사무엘상 25장 다시 읽기,”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98-118.
- 구자용, “삼하 11장 - 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119-141.
- Dietrich, W., *David, Saul und die Propheten*, (BWAT 122;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9).
- Dietrich, W., *Die frühe Königszeit in Israel*, (Biblische Enzyklopädie 3; Stuttgart, 1997).
- Dietrich, W./Th. Naumann(Hgs.), *Die Samuelbücher*, (Erträge der Forschung 28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 Henschel, G., *1 Samuel*, (NEB 33; Würzburg: Echter Verlag, 1994).
- Lehnart, B., “Saul unter den ‘Ekstatikern’ (ISam 19, 18-24),” W. Dietrich(Hrsg.),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OBO 206; Freiburg/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Vandenhoeck & Ruprecht, 2004), 205-224.
- Schmidt, L., *Menschlicher Erfolg und Jahwes Initiative*, (WMANT 38;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70).
- Stoebe, H. J., *Das erste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Mohn, 1973).

Vejjola, T.,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chen Darstellung*, (STAT 193; Helsinki, 1975).

Weiser, A., “Legitimation des Königs David. Eigenart und Entstehung der Geschichte von Davids Aufstieg,” *VT* 16 (1966), 325-354.

Wellhausen, J.,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71).

검색어

삼상 21-22장

삼상 21장 1-9절

감정조절 능력

범제의성

보편적 기록성

새로운 세계관

합리성

David's Holiness: Examined in His Exile to the Temple in Noph

(1Sam 21:1-9[2-10]; Cf. 1Sam. 22:6-23)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David had to undergo many incidents to become a king. He had equipped inwardly and outwardly for the rise during the crisi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ay of the wisdom David sought in that time.

Firstly,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Sam. 21-22 are examined, and then the text of Sam. 21:1-9 is analyzed. A new word-view, which David pursued, is also to be unveiled. David tried to get over the obstacles of kinship, regionalism, gender, race, and society which were inherited from the earlier times.

www.kci.go.kr

David is good at controlling his feelings with the help of his deep trust in God. He didn't express his uneasy feelings with Saul but sublimated it into inner side. Furthermore, breaking up with the 'concept of the holiness of lineage' in the ancient times which is ruled by pan-ritualism, he sought the 'concept of the holiness of generality'. On the foundation of rationality, which means taking responsibility of one's actions, by positioning all his actions in front of God, he sought holiness and purity of generality.

David's holiness in his feeling toward God made him an autonomous person who acts freely but takes responsibility of the outcome. This also made David maintain immeasurable confidence in God. Transforming the pan-ritualism which was tied to the obstacles of kinship, regionalism, gender, race, and society, his confidence formed a rational and general justice. It created a new spirit of times, a foundation of the incoming great empire.

Keywords

1Sam 21-22

1Sam 21:1-9

Ability to control one's feeling

Pan-ritualism/Pansakralität

The holiness of generality

New world-view

Rationality

- 투고일: 2013년 1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08일

www.kci.go.kr